

시·도지사후보 연쇄인터뷰

전남지사 민주당 박준영

걸어온 길

해직기자 출신...DJ 추천 정계 입문

지난 2004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10개월 가까이 도정을 수행해온 박준영 현 지사는 1946년 영암군 삼호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9남매 중 8번째이자 막내 아들이었다. 목포중을 졸업한 뒤 부친의 병세가 악화돼 고등학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1년여동안 농사를 지었다. 이 시기를 그는 "똥지계를 저 봤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안다"는 말로 표현했다.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그러나 기자생활 8년만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근부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며 제작거부를 주도했다가 해직됐다. 1985년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중앙일보에 복직, 편집국 부국장까지 지냈다.

정계 입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국내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했다. 청와대를 나온 뒤에는 국정홍보처장으로 일했다.

박태영 전 도지사의 유고에 따라 치러진 2004년 6월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탄핵정국의 후폭풍 속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이끌어냈다. '참배나무에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가 좌우명이다. 무엇이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생각 때문이다. 테니스와 수영을 즐기며 종교는 불교, 취미는 바둑이다. 부인 최수복 여사와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공약

박준영 후보는 지난 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운명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1년10개월간의 도정성과를 일궈낸 주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해 간추리고 다듬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공표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박 후보가 지사로서 추진해온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소의 땅에서 변영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정책은 미래 성장 동력의 육성이다. 친환경농업과 IT(정보기술)·BT(생명기술)·NT(나노기술)와 같은 첨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꾀하면서 장기적으로 해양개발 등 '중요의 씨앗'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동부권, 중남부권, 서부권, 광주근교권 등 4개 권역별 개발론을 제시해왔다. 동부권은 자체 성장동력은 있으나 SOC가 부족한 만큼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며, 관광·소재·우주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중남부권은 생약 및 바이오 산업을 핵으로 생태·체험 및 연구중심지역으로 키워나가고, 서부권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내국인 허용 카지노 건설, 섬 관광개발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광주 근교권은 첨단산업과 함께 혁신·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적절한 시기에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미래형 산업 육성 ‘변영의 땅’ 일구겠다”

-14일 민주당 중앙당 공특위의 발표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왜 재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중앙 정부에서 활동할 때도 고향인 전남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었다.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과연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였다. 1년이면 인구가 3만6천명 빠져나가고 재화는 2조7천억원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런 어려움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도정을 맡게 된 이후 지난 1년 10개월동안 장기적 안목으로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구상과 실천에 몰두해왔다. 임기중 안성은 못하더라도 기반과 터전을 닦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재선 결심을 굳히게 됐다. 소외의 땅에서 변영의 땅으로 우리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도민과 함께 나서고자 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 10개월간의 도정 운영을 자평한다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훗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눈앞의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요의 씨앗을 심는데 주력했다.

IT(정보기술)와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섬·해안선·친환경농업 등 비교우위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별로는 서부권의 경우 기업도시, 동부권은 기존 성장동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연구개발(R&D) 보강, 중남부권은 생약·바이오 등 미래형 테마산업 육성, 광주근교권은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전원도시 개발 등에 집중했다. 과거에 생각하



을 해야 해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 체육행사와 달리 세계박람회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분다는 데 특징이 있다. 더욱이 북한은 아직 BIE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다.

-J프로젝트, 즉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과 관련 투자회사의 원금 보장과 카지노 개설, 환경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환경보존은 절대적 과제이다. 관광레저도시는 환경을 훼손하면 생명력이 없어진다. 현재 4급수인 영산강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고 철새도래지도 잘 보존해야 한다.

투자회사에는 이익을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기반시설과 값싼 토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다.

카지노의 경우 도민들이 유교적 전통이 강해 꺼리지만 세계 각국은 전략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마카오를 인수하면서 카지노산업에 미국의 투자를 끌어내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고, 윤리국가로 소문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각 국가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대안은.

▲미국과 FTA는 다른 산업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한을 정해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법으로 제조업분야를 보호하듯 농업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 농업

“4개 권역별 특화산업 개발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

분야의 대책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마련해 지금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경쟁력과 더불어 교육 및 정주여건, 문화, 의료·복지 등 삶의 질 문제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의 시 지역은 원(구)도심과 신도심의 발전 격차가 커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전남 5개 시지역을 돌아다니느라 실제로 문제가 많았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구도심 재개발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고 용역이 진행중이다. 구도심에는 오래된 건축물, 역사가 깃들여 있는 공간, 추억이 새겨진 상업시설들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상가 등의 경우 주민들의 조합개발방식으로 규모 있게 추진하면 도와 시·군의 융자도 가능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덕에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점검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 있겠는지, 비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역사의 물결기를 바꾸어 낸 강력한 에너지인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유권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린다.

“섬·해안선·친환경농업 등 비교우위 자산 키우는데 주력”

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경쟁 후보들은 박 지사의 도정 운영 스타일이 '무난하다' '무색무취하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평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도민들이 하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정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가 70%대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지사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뿐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이나 SOC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누가 했는가. 소속 정당을 떠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만나며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가 이미 확정됐다. 경쟁자인 이들 후보를 평가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인가.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는 전남도에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두 분 모두 인품과 능력 면에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 최근 서 후보가 도정을 방문했을 때 좋은 정책이면 누가 도지사가 되든 서로 채택키로 했다.

특별한 필승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전남도내에서도 지역간 발전이 균형을 잃어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이 적지 않다. 중남부권과 동부권에선 도정이 서부권에 치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 진단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지역내 시·군간 불균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산물이다. 낙후도 순으로 따진다면 중남부권이 가장 낙후됐고, 그 다음이 서부권-동부권 순일 것이다. 하지만 동부권 소외 주장은 맞지 않다. 동부권은 자체 성장동력을 갖고 있지만 SOC가 부족하다. 재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5대 SOC 가운데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4가지가 동부권 사업이었다. 동부권의 R&D 기반 확충도 내가 처음 제기한 것이다. 구례와 곡성, 보성, 장흥, 고흥, 강진, 화순 등 중남부권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청정지대인 이 지역에는 생약·생물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데 지역을 따져서야 되겠는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추진할 뿐이다.

-여당의 호남고속철 정차역 추가 건설과 2012년 여수엑스포 남북공동개최 제안에 대한 입장.

▲국정이나 도정이나 선거를 의식하면 진설되지 못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집권당이 여기 저기 다니며 갖가지 선거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호남고속철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계획한 사업인데 정차역을 추가하면 기본계획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럴 경우 착공·완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호남고속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착공과 완공이다.

국가 행사든, 지역의 행사든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여수엑스포 남북공동개최 제안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는 6월이면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신청



Advertisement for TOPE skin cream with text: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이어서 딥화이트닝 만만시브', 'TOPE'.